



3월 25일
목요일

보 도 자 료

생명의 땅 으뜸진남
Land of Life, Best Jeonnam
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김태원	☎	286-652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‘전남 으뜸한우’ 전국 최고 명품한우로 현재 진화중!

- 13개 시·군에 28억원 지원, 한우개량 선두주자로 나선다 -

-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‘전남 으뜸한우’ 브랜드 육성 확대를 위해 올해 6개 시·군을 새로 선정하여 총 28억원을 지원해 전국 최고의 한우를 생산·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.
- 2018년부터 시행한 “전남 으뜸한우”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남도, 한국종축 개량협회, 시·군 및 지역축협, 축산농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4년동안 13개 시·군 7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.
 - 참여 시·군 : (4년차) 고흥군, 강진군 (3년차) 곡성군, 화순군 (2년차) 영암군, 무안군, 장성군 (1년차) 보성군, 장흥군, 해남군, 함평군, 영광군, 신안군
 - 지원현황 : ‘18) 2/10 → ‘19) 4/15 → ‘20) 7/20 → ‘21) 12개 시·군/28억원
- 최근 3년간(’18년~’20년)의 추진결과 3,6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암소 20천두, 송아지 14천두를 선발하였으며, 일반 한우송아지에 비해 평균 경매가격이 50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.
 - 평균가격(으뜸한우송아지/일반송아지) : 수(488/458만원) / 암(432/375만원)
- 또한 ‘전남 으뜸한우송아지’로 선발된 거세우 도축성적 결과 전국과 비교하여 도체중 2.4%, 등심단면면적 5%, 경락가격 6% 높은 도축성적을 보였으며,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0만원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.
- 선발된 ‘전남 으뜸한우송아지’는 도내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우리 도 한우개량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그 결과 매년 개최되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2연속(2019~2020년)으로 대회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.

○ 아울러, 전라남도 축산물 광역브랜드 중 하나인 “녹색한우”는 2020년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인증받은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, “지리산순한한우”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“명품인증”을 획득하는 등 전남산 한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.

□ “전남 으뜸한우송아지” 선발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암소 중 유전능력 및 후대도축 등의 일정기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우량암소를 우선 선발 후 선발된 우량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중에서 친자확인 및 발육상태, 질병 감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발한다.

○ “으뜸한우송아지”로 선발된 개체는 전남도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 귀표를 별도로 부착받아 지역축협으로부터 사양관리 컨설팅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인공수정, 백신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.

□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지난해 전남도는 한우 등록사업이 전년 대비 24%가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한우개량을 이뤄나가고 있다. 앞으로 더 많은 한우농가에서 ‘전남 으뜸한우’ 브랜드 육성에 참여하여 한우개량에 적극 노력해 달라”라며 전남산 한우 차별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.